

고이즈미 야스쿠니 신사 참배 韓·中·日 '긴장'

# 강행 땀 대사소환도 불사

## 韓·中 정부 '초강경 카드' 검토 '포스트 고이즈미' 경고 필요성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참배는 한일, 한중간 관계의 악화로 이어질 것이 확실하다. 한국과 중국 내 대일본 여론이 극도로 악화되고 있을 뿐 아니라 양국 정부도 강력 대응 방침을 잇따라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 언론 등에 따르면 고이즈미 총리는 15일 오전 7시 '개인참배' 형식으로 야스쿠니 신사를 찾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8·15 신사참배 포기를 강경한 대일 외교의 실마리를 푸는 계기로 이용하고자 했던 한국과 중국 정부의 바람을 저버린 것이다.

◇ 한국 대응=지난해 일본의 역사인식 때문에 사실상 정례 정상교류를 중단한 한국 정부는 일본 총리의 신사참배 중단을 한일관계를 푸는 실마리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일본이 신사참배를 하지 않겠다는 성의만 보여도 대일외교의 강경수위를 낮출 수 있는 직접 계기가 된다"며 기대감을 보였다.

지난 8일 고 하시모토 류타로 전 일본 총리 장례식에 반기문 외교장관을 보내 예우한 것도 8·15에 임박해 일본의 태도 유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사전 제스처 성격이 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이즈미 총리가 광복절에 신사참배를 강행한다면 한국 정부로서는 강경 대응할

수 밖에 없다. '고이즈미 그 이후'를 생각해서라도 더욱 강한 대응이 필요하다. 유력 차기 총리감으로 알려진 아베 신조 관방장관과 납치자 문제와 관련한 대북 강경 입장, 헌법 개정을 통한 교전권 인정 등 강경보수로 인기를 얻어온 인물이라는 점에서 경고 필요성이 더 높다. 그의 조부가 A급 전범용의자였다는 점도 경계심을 높이는 이유다.

한국은 고이즈미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할 경우 공식적으로 항의 성명을 발표하고 역사 인식에 대한 반성 없이 한일관계가 개선되기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전달할 예정이다. 아울러 주일 대사 소환도 고려하고 있다.

◇ 중국 대응=중국도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고이즈미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단행하면 중국은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 일본 총리가 야스쿠니(靖國)신사 참배를 강행할 경우 주일대사를 본국으로 소환하는 강경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중국은 일본에 대한 사전경고의 의미로 지난 10일 왕이(王毅) 주일 중국대사를 중국으로 급히 불러들였다.

홍콩 시사주간지 아주주간(亞洲週刊) 최신호는 14일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4월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를 반대하는 담화를 발표하면서 만약 고이즈미 총리가 8·15 참배를 강행할



지난 2001년부터 2005년까지 다섯 차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고이즈미 일본 총리. (광주일보 자료사진)



### 고이즈미 야스쿠니 신사 참배 일정

일시	내용
2001년 4월	8월15일 야스쿠니 신사 참배 공언
2001년 8월13일	일기 내 첫 번째 야스쿠니 신사 참배
2002년 4월21일	두 번째 야스쿠니 신사 참배
2003년 1월14일	세 번째 야스쿠니 신사 참배
2004년 1월1일	네 번째 야스쿠니 신사 참배(기술적 성격 강함)
2005년 10월17일	다섯 번째 야스쿠니 신사 참배

경우 중국도 결단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당시 후 주석은 이 경우 대사 소환의 강경한 외교적 항의 조치를 채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사 소환은 상대국에 대한 가장 강한 불쾌감을 전달하는 외교적 대응 수단으로 양국간 외교 현안이 해

결될 때까지 대사를 주재국으로 돌려보내지 않는 초강경 조치다. 중국은 고이즈미 총리의 참배로 중일관계가 더욱 악화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먼저 왕이 대사를 임시 소환하는 방식으로 신사참배 문제에 대해 수동적 입장에서 적극적인 태도로 전환해나가고 있는 모양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北 미사일 발사로 부시 생일파티 취소”

### 홍콩 문화보, 中 주석과 통화 보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 때문에 생일파티를 취소할 수 밖에 없어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는데 주석의 생일 축하 전화를 받고서 기분이 정말로 좋아졌습니다” 홍콩 문화보(文匯報)가 14일 조지 부시 미국 대

통령과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의 지난달 5일 전화통화를 기사화한 내용이다.

미국 독립기념일(7월4일)과 부시 대통령의 60회 생일(7월6일)에 맞춰 지난달 5일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자 부시 대통령은 후 주석에게 먼저 전화를 걸었다. 한반도 정세에 대한 의견 교환이 주내용이었지만 두 정상은 이에 앞서 솔직한 인간적인 대화

를 나눴다. 후 주석이 먼저 생일 축하의 뜻을 보내자 부시 대통령은 “사실 주석 선생에게 전화하기 전에 그다지 유쾌한 기분이 아니었다”며 “북한이 오늘 미사일을 발사하는 바람에 내 생일파티를 취소해야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부시 대통령은 이어 “지금까지 오직 두사람만이 생일축하를 해왔다. 한 분은 어머니이고 다른 한 분은 바로 당신이다. 방금 어머니와 전화통화를 마친 상태였다. 주석 각하가 내게 따뜻함을 안겨줬다. 당신의 축하는 정말로 나를 기쁘게 했다”고 덧붙였다. /연협뉴스

## 글로벌 100대 대학 한국은 한곳도 없다

### 뉴스위크 '세계화 점수' 평가...일본 5곳·싱가포르 2곳 포함

#### 1위 하버드대...미국·영국 1~10위 모두 차지

글로벌(세계화) 세계 100대 대학에 한국은 단 한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세계화된 대학은 미국의 하버드대이며 스탠퍼드대, 예일대, 캘리포니아 공대, 캘리포니아주립대 버클리로 등의 순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지난해 영국 '더 타임지'가 발표한 '세계 200대 대학' 중 93위를 차지했던 서울대는 이번 조사에서는 100위 안에 들지 못했다.

미국의 시사주간지 '뉴스위크'는 해외논문 수와 외국학생 입학허용, 외국대학과의 학생교류 등을 기준으로 자체 평가한 '세계 100대 글로벌 대학 명단'을 13일 발표했다.

전 세계 대학평가는 영국의 더 타임지와 미국의 잡지 '유에스뉴스 앤 월드 리포트', 홍콩 상하이 교통대학 등 여러 군데서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으나, 이번 조사는 세계화를 기준으로 점수를 매겼다는 점에서 주목을 끌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세계 최고의 글로벌 대학으로는 미국의 하버드대가 선정됐고, 스탠퍼드대와 예일대, 캘리포니아공대, 캘리포니아주립대 버클리로, MIT, 옥스퍼드, 캘리포니아주립대 샌프란시스코분교, 컬럼비아대 등 미국과 영국 대학이 1~10위까지를 모두 차지했다.

아시아에서 한국과 중국(홍콩 제외)의 대학은 한 곳도 선정되지 못했다.

아시아에서는 일본 도쿄대가 16위로 최고였으며, 일본에선 도쿄대를 비롯해 교토대(29위), 오사카대(57위), 도호쿠대(68위), 나고야대(94위) 등 5개 대학이, 싱가포르 대학 중에선 싱가포르국립대와 난양기술대 2개가, 홍콩 대학 가운데선 홍콩 과학기술대(60위)와 홍콩대(69위)·홍콩중문대(96위) 등 3개가 각각 100대 글로벌 대학에 뽑혔다.

변한 논문 인용 연구자수, 과학 전문지인 '네이처'와 '사이언스' 게재논문수, 사회과학 논문인용지수인 SSCI와 예술 및 인문학논문인용지수인 A&HCI 등을 50% ▲외국인교수 수, 학생 대 교수 비율 등을 40% ▲도서관 보관도서규모 10% 등을 각각 반영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한편 뉴스위크는 명문대학의 상징인 미 북동부의 8개 사립대학(하버드대, 예일대, 컬럼비아대, 프린스턴대, 펜실베이니아대, 코넬대, 다트머스대, 브라운대)을 가리키는 '아이비(IVY)리그'가 최근엔 학생들간에 경쟁이 강화되면서 25개 명문대학을 가리키는 '뉴 아이비리그'로 바뀌었다고 주장했다.

뉴스위크는 '뉴 아이비리그' 대학으로 보스턴대, 예모리대, 미시간대, 뉴욕대, 노스캐롤라이나대, 리드대, 라이스대, 로체스터대, 캘리포니아주립대 로스앤젤레스분교, 버지니아대, 워싱턴대(세인트루이스) 등을 꼽았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 뉴스위크 선정 100대 글로벌대학

- |                        |                    |                       |                     |
|------------------------|--------------------|-----------------------|---------------------|
| 1. 하버드                 | 26. ETH 로잔         | 51. 콜로라도              | 76. 룬트              |
| 2. 스탠퍼드                | 27. 텍사스주립대(오스틴)    | 52. 우트레흐트             | 77. 텍사스 A&M대        |
| 3. 예일                  | 28. 위스콘신주립대(매디슨)   | 53. 델프트               | 78. 웨스턴 호주대         |
| 4. 캘리포니아 공대            | 29. 교토             | 54. 남캘리포니아주립대(USC)    | 79. 파리 에콜 노르말 쉬페리외르 |
| 5. 캘리포니아주립대 버클리로       | 30. 메니스토타주립대       | 55. 알버타               | 80. 버지니아            |
| 6. 케임브리지               | 31. 브리티시 콜럼비아(UBC) | 56. 브라운               | 81. 뮌헨 공대           |
| 7. MIT                 | 32. 제네바            | 57. 오사카               | 82. 히브리(예루살렘)       |
| 8. 옥스퍼드                | 33. 워싱턴대(세인트 루이스)  | 58. 맨체스터              | 83. 라이덴             |
| 9. 캘리포니아주립대 샌프란시스코 분교  | 34. LSE (런던정경대)    | 59. 캘리포니아주립대 산타버바라 분교 | 84. 워털루             |
| 10. 컬럼비아               | 35. 노스웨스턴          | 60. 홍콩 과학기술대          | 85. 킹스 칼리지 런던       |
| 11. 미시간대(엔아버)          | 36. 싱가포르 국립대       | 61. 외계남경              | 86. 파듀              |
| 12. 캘리포니아주립대 로스앤젤레스 분교 | 37. 피츠버그           | 62. 미시간주립대            | 87. 버밍엄             |
| 13. 펜실베이니아             | 38. 호주국립대          | 63. 뮌헨                | 88. 올살라             |
| 14. 듀크                 | 39. 뉴욕대            | 64. 뉴시우스웨일            | 89. 암스테르담           |
| 15. 프린스턴               | 40. 펜실베이니아 주립대     | 65. 보스턴               | 90. 하이델베르크          |
| 16. 도쿄대                | 41. 노스캐롤라이나대(채플힐)  | 66. 밴더빌트              | 91. 쾰른대             |
| 17.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        | 42. 맥길             | 67. 로체스터              | 92. 루벤              |
| 18. 토론토                | 43. 에콜 폴리테크닉(프랑스)  | 68. 도호쿠대              | 93. 예모리             |
| 19. 코넬                 | 44. 바젤(스위스)        | 69. 홍콩                | 94. 니고야             |
| 20. 시카고                | 45. 매릴랜드           | 70. 세펠드               | 95. 케이스웨스턴신학대       |
| 21. ETH 취리히            | 46. 취리히            | 71. 난양기술대             | 96. 홍콩 중국대          |
| 22. 워싱턴(시애틀)           | 47. 예딘버러           | 72. 비나우               | 97. 뉴캐슬             |
| 23. 캘리포니아주립대 샌디에고 분교   | 48. 일리노이대(아버나)     | 73. 모나쉬               | 98. 인스브룩            |
| 24. 존스홉킨스              | 49. 브리스톨           | 74. 노팅엄               | 99. 메사추세츠           |
| 25.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       | 50. 시드니            | 75. 카티지 델론            | 100. 서섹스            |

**경영 지도자 과정**

신입생 모집 조대 평생교육원

문의전화 ☎222-2255, 011-611-9010

**스피치 리더십 과정**

신입생 모집 조대 평생교육원

문의전화 ☎222-2255, 011-611-9010

**사무용 가구의 모든것**

몰직한방으로 www.hanboGAGU.com

신입생 모집 조대 평생교육원

**사무용의자 전문상업판매**

**토치 광주총판**

신입생 모집 조대 평생교육원